



16면

익산 청년시대 열린다... '청년시청' 개칭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음 11월 19일) 제3159호

대표전화 (063)288-9700

## 내년 수정예산안 긴급 제출

농가경영 안정 위해도비 42억 등 총 112억원 증액

농자재 지원·논 타작물 재배 확대 등에서 늘려

전북도가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긴급 제출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처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해 2023년도 수정예산(안)에 4개 사업에 112억원을 증액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이하 농진청)은 배경은 변세유 사료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30~150%까지 급등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주요 농자재의 가격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은 여전히 높고, 전라북도의회 15개 농업안단체연합회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해온 사항 등을 종합한 대책안이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담기 추가 예산은 도비 42억원 등 총 112억원으로,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0억원을 증액 요청했으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쌀 가격 대책으로는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해 16억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곡물가 고공비행,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통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9일 원주 비나텍(주)공장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가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오른쪽)를 만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 기업 애로 해소 위해 현장 속으로 '노송동 만인의 동네'

김관영 도지사, 수소연료전지 생산 비나텍 방문

내년까지 860억원 투자 12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기업하기 좋은 전북' 위해 다양한 의견 공유

김관영 도지사가 도내 수소연료전지 생산기업(주)비나텍을 방문했다.

지난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원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 신축에 소재한 비나텍(주) 공장을 방문해 성도경 대표로부터 기업 운영 애로를 청취하고 생산공정을 둘러봤다고 밝혔다.

비나텍(주)은 지난해 8월 원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신축단지 5만5,741㎡(약 17천평) 부지 내 수소연료전지 생산을 위한 공장 착공에 들어간 뒤 현재 1개 층이 준공돼 본격 가동 중이다.

또 내년까지 총 860억원을 투자해 12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 비나텍(주)은 지난 1999년 설립하고 2011년 경기 군포에서 전북으로 이전해 온 뒤 전북 탄소와 전기 관련 기업에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주력기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비나텍(주)은 탄소관련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019년

12월에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선정됐고 2020년 9월에는 도내 탄소기업 최초로 코스타에 상장한 기업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성도경 대표에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사업을 통한 기업성장 및 지역경제에 최선을 다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며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성도경 대표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소리를 들어준 김관영 도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만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며 "기업에서 요구한 사항은 행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서노송예술촌서 예술제

전주시 서노송예술촌에서 마을주민과 어린이,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예술축제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선미촌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 일대에서 서노송예술촌 예술제 '노송동 만인의 동네'를 진행했다.

이번 서노송예술촌 예술제에서는 먹거리 체험과 뜻자리 장터, 별난 놀이터, 예술편의점 등이 진행돼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행사로 꾸며졌다.

예술제 첫날에는 먹거리체험과 뜻자리 장터, 별난 놀이터, 예술편의점이 운영됐고 둘째 날에는 먹거리 체험과 뜻자리 장터, 별난 놀이터, 예술편의점, 버스킹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예술제에서는 서노송예술촌 주민과 함께 부침개 만들기, 계란 토스트 만들기 체험 등 음식을 매개로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먹거리 체험 만인의 식탁도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뜻자리 장터에는 인근 풍남초등학교 학생들이 판매자 역할로 참여해 재활용 물건 교환 장터인 '하나바다'를 콘셉트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이영 기자

## '탐구영역 성적 유념해 지원해야'

도교육청, 대입 정시 지원 전략 안내

사탐·과탐 난이도 높아 표준점수 높게 형성

이과-문과 교차지원시 변화표준점수 등 고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정시 입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우리 지역 수험생들이 특히 고려해야 할 지원전략에 대해 안내했다.

지난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정시에서는 탐구영역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물론, 최고 표준점수 성적이 높은 수학 성적이 정시 지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겠지만, 탐구영역이 어려웠던 만큼 탐구영역 성적에 유념해서 정시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먼저, 국어영역은 예년 대비 비교적 쉬워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상위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수학영역은 어려웠던 만큼 상위권 수험생들이 표준점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위권 수험생들은 국어영역

의 동일 등급과 표준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다음으로, 절대평가로 산출되는 영어영역의 등급별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하나 9월 치러진 모의평가가 쉬웠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탐구영역은 올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가 모두 어려웠던 만큼 표준점수가 모두 높게 형성됐다. 특히 사회탐구 영역의 표준점수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만큼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문과 교차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 수능이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쉬웠던 만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규

모가 크게 늘어나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수험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3~4등급대의 중상위권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전년도 합격선을 참고해서 지원해야 하며, 사회탐구의 경우 표준점수가 높아졌으므로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을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추후 대학에서 발표하는 탐구 변화표준점수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3년 대입 정시 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정시 대비 전략 및 수도권 대학 지원전략 안내다.

이와 함께 15일부터는 대면 상담실도 운영된다. 도교육청에서는 15~22일 평일 오후 4~10시에 운영하고, 전주·군산·익산은 17~18일, 정읍·남원·김제는 17일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대면 상담 예약은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http://www.tegokor/jno>)에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